멍든 休日의 봄놀이
昌慶苑

<五萬인파가 법석대는 일요일의 창경원>

迷兒·소매치기沙汰
父母 아이찾기법석 警察 犯人잡기진땀

일요일인15일 五만인파가 모처럼봄을찾아몰려든 昌慶苑에서는 갖가지불상사가발생, 특히미아와소매치기의 사태로이루어 부모들은 아이를찾고 경찰은 범인을 잡기에 진땀을빼었다

이날일어난 불상사의몇가지만 보아도 ▲도합四三명의 미아가발생, 그중 四一명은 경찰의 수고로 昌慶苑의 문을닫기 까지 부모들이 찾아갔으나 朴호전(7‖男)군과 5세가량된 남자아이는 경찰이보호중이며 ▲소매치기(날치기포함)는 도합一八건이발생, 이중一○건의 범인은 비상배치중인 경찰이 잡았으며 ▲M여고二년생 鄭은숙(17)양은 昌慶苑입구에서 24세가량된 여자를 만나 표문사주며 같이 들어가자는바 담에 따라들어가 잡이사진도 적으며 놀다가 하오3시쯤 전기 여자가갑자기『소매치기를 당했으니 학생의「카메라」를나에게 맡기고 경찰에연락해달라」고 하기에 鄭양이 자기「카메라」(싯가五만환)를 동 여인에게 맡겨두고 파출소에 갔다오는 사이에 여자는鄭양의「카메라」를 가지고도망쳐버렸다고 한다

이날하오5시반쯤에는모 군인' 七, 八명이 술을먹고 육군헌병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는것이 도화선으로 약한시간가량 옥신각신이 벌어지기도했다

이날경찰은 평소의약二배의인원, 사복一五명·정복二○명가량을배치, 사고예방에 당하였다

『서運』의 休日도말썽

프로拳鬪 修羅場化
豫告한「께임」안해觀衆激憤

15일하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한국권투위원회주최「프로」권투선수권대회에서 주최자가 사전에 발표한 경기대진을 실행치않아 관중들이 들고일어나 一대소란을일으켰다

이날의 선수권쟁탈전은「페더」급에 徐鐵대李理吉「판담」급에 鄭國勉대李東旅「웰터」급에 成正一대李안사노의 세「께임」이 예정되었던것인데 최축은 예고대전무「께임」을하지못하는데대한아무런사전양해발표도없이「께임」을묵살하였다 그런데 예고대전의鄭國勉선수는현재 日本에있고 李안사노선수는 신병으로 출장치못한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측은 이에대한 시합취소발표도 하지않고 관중을 입장시켜 徐鐵一대李理吉의 한「께임」만 거행하게되는것을안 관중들은 격분하여 방석을 본부석에 던지는등 약二○분간이나 장내가 소란하였던것이다 이에 당황한 주최측은 이날 못한경기를 오는29일 무료공개한다고 발표하여 간신히경기를 진행시켰다

그런데 운동장측에서는 29일에는 각경기장마다 다른경기가 있으므로 빌려줄수 없을뿐아니라 앞으로「프로」권투에 대해서는 행사마다 세밀히검토해야 되겠다고말하고있다

釜山서도賞春人波
郊外로20萬名이나

【釜山發】○…공휴일인15일아침 벚꽃이만발한東萊와 東萊온천장 海雲臺및 松島등 각유원지에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이루어 금년들어 처음으로법석대었다

○…이날따라 시내공설시장도 공휴일이었기때문에 상오8시30분에는 철도국에서마련한 一二량연결의 鎭海행특별관광열차와 대한여행사의관광「뻐스」등이운행되어 교외로 흩어진인원은 약二○만으로추산

昌慶苑서 市民慰安音樂會
=海兵隊創設열세돌記念=

해병대창설열세돌을 기념하는시민위안음악회가 15일하오1시부터 昌慶苑 내 식물원앞광장에서 열렸다

위안회는 때마침 일요일을맞아 고궁을찾아든 수많은 시민들의열광적인 박수갈채속에 二시간가량 계속되었는데 먼저 해병대군악대와 고적대의 군악연주에이어 군예대의흥겨운 노래와「코메디」가 있었다

「못」속에處女屍
家族들은 他殺主張

【大邱發】14일상오9시쯤 이곳 聖堂동 못에 묘령의처녀가 옷과 고무신을 길신은채 죽어있는것을 길가던 金鍾植(49)씨가발견, 內唐동파출소에 신고해왔는데 시체의신원은內唐동一四八 諸葛菊子(19‖직공)양으로판명되었다

시체를 검안한결과 죽은시간은 이틀이나 경과된것으로 보인다고하는데 諸葛양의 조모 裵順姬씨는 ▲諸葛양이 지난4일 皇甫시민극장부근에있는 집을 나간후 돌아오지않아 그동안 그의행방을 찾고있는데 內唐동부근에서 어떤 여인에게매를 맞으면서 끌려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인근주민들이 말하기에 內唐동파출소에 신고한일이 있고 ▲특히 諸葛양은 달반전부터 전기 공장에서 기숙자로 있는 安順奉(27)씨 밑에서 일을배우고 있었는데 安씨의처 尹德先(25)씨는 남편安씨와 죽은 諸葛양 사이에 이성 관계가 있다고질투끝에 諸葛양에게 매질을 하고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흘동안이나 집에 물어가지 않았다는사실등으로 미루어보아 諸葛양은 타살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경찰은 15일하오 1시 현재 시체를 慶北대학병원으로 옮기는한편 安씨부부를 연행조사중에 있는데 시체에는 외상이없다고한다

星州에큰山蔘
길이四尺넘어

【金泉發】慶北星州군金水면명천동에 사는金道仁(49)씨의처李씨가 11일자기집 뒷산에서 길이 四척이상, 직경二치나되는큰 산삼을 캐내어 색다른이야기거리가 되고있다 李씨는『몇년전부터 신병을앓고있는 남편의 병을 고치려고 기도하기위하여 산에 올라갔더니 갑짜기 백발노인이 나타나 가리키는곳을 파보았더니 산삼이 있었다』고 하는데 李씨는 살기가 어려워 적당한 값으로 팔기를 원하고있다

釜山市內 좀도둑掃蕩戰
14日하룻밤拘束令狀56件發付

【釜山發】釜山지법에서는 지난 14일 하룻밤사이에 절도피의자등에 대한 五六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곳 경찰은 요즈음 도범일소강조주간을 설정하고 방범에 주력하고있는데 이같이 하룻밤사이에 영장이 대량발부된것은근래에 드문일로서 영장으로본 피의자들은 주거침입, 절도, 상습절도, 절도미수등인데 이중에는 모다방「레지」가 주인집방에 든「핸드·백」속에서현금 三천환을 꺼내다가 발각된 경우도있다

40回어린이날 各種行事準備
少年運動者聯盟

한국소년운동자 총연맹은 오는5월5일의 四○회어린이날을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올리는한편 상오11시와 하오5시 두차례에걸쳐「국제소년소녀예술축전」을베풀것이라한다

連鎖交通事故
에티오피아軍집車

15일하오8시40분쯤 시내城東구新堂동三七○의五三앞길에서 만취된「에치오피아」군인이 운전하던「짚」(「에치오피아」대대六호)차가 지나가는우차를 들이받고 연달아五십여「미터」앞정류장에서 있는 합승(서울영四四一一)을 들이받아 우차는 전복대파, 합승은 후부파손, 마부文成根(52‖樂水동山二四)씨는 허리와팔에 부상을입고 미군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19歲少年行方不明

지난8일하오3시경 시

집主人殺害事件

속보‖15일하오 西大門구 峴底동집주인 徐相賢씨살해사건의범인朴商道에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朴은범행일체를 순순히재연하였다

누이동생의 共謀追窮
朴은現場檢證서犯行一切自白

한편경찰은 朴의친누이동생(확인되지않고있음) 朴모(21)양을연행, 공모여부를조사중인데 범행당일인 26일하오1시쯤 朴양은『죽을請여 오빠와徐노인을 겸상으로 차려주고 자기는방으로돌아와서 혼자서죽을먹었고 그후오빠가 방에서나와서 徐씨에게 약을먹였으니 입밖에내지말라고 말했는데 무슨약을먹였는지도몰랐다』고 공모사실을완강히 부인하고있다

朴양은 지난달초순 오빠와같이 고향인 禮山에서 상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방에서 朴과 기거, 누구보다도 朴의一거一동을 알수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은徐노인살해를 남매가공모한것이아닌가보고 계속수사중이다

總19萬餘點
「產博」出品接受마감

오는20일서울景福宮에서 열릴예정인 군사혁명一주년기념 산업박람회의 출품접수가 15일하오 마감되었는데 출품총점수는 一九만六천여종에달하고있다 출품된전시품은 늦어도 17일까지는 장식이완료될것이며 이날에는 또 전출품자가회동할것이라한다

관계직원들은 출품정리와 그시설을 개막전에끝내기위하여 철야작업을하고있다 출품수를보면 다음과같다

▲업종별관‖六、四七五종 ▲시도별관‖四、○四八종 ▲해외교포출품‖一천건 ▲국제관‖二、一○八건 ▲특별관‖六천종

죽음의 歲月 ㉗
拉北人士 北韓生活記

단벌옷으로越冬
將棋두는것이單한가지의樂
날마다共産講義받아

50년12월초순 심사결과 현상파및 지명인사들이 수용되어있는 別午里 祖統합숙소로옮겨간 張建相 趙素昂 金奎植 申錫雨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회의원들은 그대로滿浦에서 약二십리떨어진농가에 수용되었다.

북면파견된 당간부와 祖統간부들은 이들에게 자서전 특히 남한에서의경력을 상세히기록케하는한편 일과표를만들어 엄격한규율생활을하게하였다. 그러나 와병중인 金商柱 許永鎬 및 仲倉등병자는 여기서제외되었다.

노인은 노인대로 장년은 장년끼리 따로나누어서 一주일에 두번씩 찾아오는 강사와 토론하기위해 전장이 남은 공산서적을 뒤적이어야했다.

서무책임자로 崔炳柱가 임명되어 그는 보름마다 別午里수용소까지 가서 옥수수, 쌀, 된장, 소금등을 배급받아 썰매에 싣고와서는 동료들이 수용된 집집마다 나눠주었다.

밤이면 배급받은 몇고치의 담배를 놓고 무전하는 것과 장기두는것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었다.

어느날밤 別午里로 연극구경을 간다는 소식에 이들은 모두 기뻐했다. 구경이라야 뻔한것이지만 감금생활을하는 이들에겐「주먹」에 실려 거리로 나간다는것만도 위안이 아닐수 없었다.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들은 소지품과 滿洲에서 흘러나온「배갈」을 바꾸어가지고 와서 오랫만에 취하도록 마셨다. 그러나 워낙 쇠약한몸이라 술기운에지쳐 모두 또하고 눕어졌다.

강의시간마다 대개는 졸기가 일수였는데 그럴때면 강사는「당신네 같은 사람이 이남에서 정치를했으니 잘될리가 있소? 국사를 논하는 의사당에서도 그렇게졸았을게 아니요. 나도내 마음데로 이곳에오는게 아니라 상부명령에 의해 오는 것이니 경그런다면 별도 조치하겠소.」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성급한 金雄鎭이『이미 四○이 된 씬들 넘은데다 쇠약한데, 먹지도 못해 몸도 이해해줘야지 그런쯤 몸지각한 언사는 심하지 않소.」하고 대들었다. 이사건으로 즉시 金雄鎭은 別午里 祖統으로 끌려가 三일간 고통을 받고. 기진맥진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동네주민들은 모두 이들 납치인사를 가엾게 생각하여 옥수수떡등을 몰래 갖다주곤 하였다.

한편 문화계 저명인사인 柳子厚, 金億 李白水등 수십명은 납치된 고급관리와 법조계인사 즉 荆德浩 李澈, 姜炳順 등 일단과 함께 커다란 두농가에 집단수용되었다.

동네서 이불을 징발하여다 나누어주긴 하였지만 이불하나에七, 八명씩 누비옷을 입은채 자야했기 때문에 까맣게 때가 오른 옷주제란 이루 말할수가없었다.

부득이 옷을 빨아야 할 때는 자기 단벌옷을벗고 남의 옷을 빌려 입은다음 냇가로나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하였다. 이렇게 빨래하는 동안 옷을 벗어준 친구는 방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야했다.

역시 이들도 자서전을쓰고 매일 공산주의 강의를 받았다. 담배라곤 이따금 배급주는장수연뿐 그나마 형편없이 양이 적었다.

모두 성격이 온순하고 글을 좋아하여 심심풀이로 동네 아동들을 데려다 글공부를가르쳤는데 이도 감시원의 제지로 며칠안가중단되었다.

특히 동네에 있던한 노처녀는 시인 金億을 사모하여 빨래도 하여주고 여러가지 시중을 들·자진해서 들어주었다.

金億 역시 외로운처지에서 그녀를 고마와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이사실이 탄로되어 노처녀는 그동네에 있지 못하고 딴곳으로 추방되고 말았다. <內外問題硏究所提供>

個人軟式庭球閉幕

▲男子一般部決勝 朴容璡·鄭泳駿(遞監) 5-2 (成寬洙·尹董鎬(遞監))
▲女子一般部決勝 朴玉順·李靜江(農協) 4-3 (金泳惠·南淑子(中大))
▲壯年部決勝 郭丞魚·元漢奎 4-0 (朴尙允·金昌基)
▲老莊部決勝 金城化·鄭南澈 기권 (吳燦浩·韓啓芳)

高校野球 15日戰績

京畿工高 000060000 6
京東高 000300000 3

中小企銀텁첫勝利
對農協野球

15일하오3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열린「종합경기장」건립 경축야구대회 中小企銀대 農協전은 一회말 中小企銀이 안정되지않은 農協투수 朱世鉉군을 공략하여「안타」와 적실2로 일거3점을 가볍게 선취하고 三회말에 다시1점을 추가하여 農協「팀」을 물리쳤다

中小企銀 30100000× 4
農協 000100000 1

▲主審 趙点龍 ▲農協 投手 朱世鉉 金潤玉(四回交代) 文雅男(六回交代) 捕手 沈義一 ▲中小企銀投手金星根 捕手 許鎬俊

中高珠算對抗競技
高大主催

15일 高麗대학교 상과대학주최 제九회「전국남녀중·고등학교대항주산경기대회」가 동교강당에서 열렸다 전국三八개학교에서 모여든 一五○명의 선수들은 저마다의 빠르고 정확한솜씨를 보여주었는데 입상자는 다음과같다

◇단체상 ▲一등‖德壽商高 ▲二등‖明星女高
◇학교대항「리레」 ▲一등‖德壽商高 ▲二등‖明星女高
◇개인최고득점상 ▲一등‖申富男(明星女商) ▲二등‖金發男(群山商高)

▼拾得物▲ ◇14일 仁상고金光烈군은시내鷺岩동에서 李到娟씨의 시민증, 신분증을 습득, 본사에기탁하였다

알림
◇敬天愛人社主催 復活節聯合奉事禮拜‖21日下午7時半 奬忠壇公園에서
◇▲前本社社員 鄭信永(32)氏가 腸閉塞症으로 西獨함부르그大學病院에서 14日 死亡하였다

星 群
金八峰
李靑田 畵
【607】

東平府·東昌府 ㊅

이때 동창부 태수는 성위에서 장청이가 양산박 대장을 전후 십오명이나 때려눕히는 광경을 목도하였는지라, 비록 공왕과 정득손 두사람의 장수가 적에게 사로잡혀 가기는 했지만, 유당을 잡아가지고 오는 장청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여 즉시 그와함께 주아(州衙)로 돌아가서 유당에게는 칼을 씌워 옥에 가두게하는일방, 장청에게는 술을 권하면서 일을 의논하였다.

한편, 송강은 군사를거두어가지고 본진으로 물러와 공왕과 정득손 두사람의 포로를 양산박으로 압송하게한후, 노준의 오용 두사람을 보고 말하였다.

『내가 알기엔, 옛날오대(五代)쩍에 대량(大梁)의 왕언창(王彥彰)이가 해가 기울어지기전에 당(唐)나라 장수 삼십육명을 때려눕혔다더니, 오늘 장청이는 잠간동안에 우리 장수 열다섯명을 집어치웠으니, 왕언창만은못하겠지만 이사람도 맹장(猛將)이 아니오?』

노준의·오용 두사람외에 다른 두령들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못하자, 송강은 또 말한다.

『내가 보아하니, 이사람이 공왕과 정득손두사람의 우익(羽翼)을 잃고서는 힘을 쓸여유가 없을것같소. 그렇께 아니오? 이런때 그놈을 잡을 좋은 꾀가 없을까?』

그러자 오용이 자신있게말한다.

『형님,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청이가 출몰(出沒)하는광경을 보고 저는벌써 설계를 꾸며가지고 있읍니다. 우선 부상당한 두령들을 산채로 올려보내서 치료하도록하고 그대신 노지심(魯智深)·무송(武松)·손립(孫立)·황신(黃信)·이립(李立)…이렇게 다섯사람이 수군(水軍)을 영솔하고 배를갖고 오도록하여 수륙병진(水陸並進)하고 선척상영(船隻相迎)하도록한다음 장청이를 꾀어내기만하면일은끝납니다.』

오용의 말을 듣고 송강은 그대로 시행하였다.

한편, 장청은 장청대로 성내에서 태수와합께 상의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이기고 있읍니다마는, 적의 무리를 쫓은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적정(敵情)을 탐색해오게한후 대책을 세우는것이 좋겠읍니다.』

이렇게 말하고있을때, 탐색병 하나가 들어와서 보고를 한다.

『지금 영채뒤 서북방으로부터 어디서 오는겐지 알수 없는, 곡식을 시른 수레가 백채도 더되게 이리로 오고있고, 또 물위에도 곡식을 시른 배가 오백여척이나 떠오고 있는데, 연로(沿路)에서는 몇사람 두령놈들이 감독하고 있읍니다.』

태수가 듣고 머리를기울이더니, 조용히 일른다.

『그거 도적놈들이 무슨 계교를 부리는건지 알수 없다. 다시 딴사람들이 나가서 진가(眞假)를 알아보도록해라.』

태수가 이같이 말한고로 탐색병들은 다시 진상을 조사하러 나갔다.

이튿날 새로 나갔던탐색병이 돌아와서 보고한다.

『사실 수레에 실린것이 전부 곡식이 틀림없읍니다. 육지에서 오는 수레는 가까이 보았으니까 말할것도 없고요, 배에는 모두 포장이 덮여 있기때문에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쌀푸대가 삐죽 삐죽드러나 보이는것이, 곡식인것만은 틀림 없더군요.』

이말을 듣고 장청이한다.

『됐읍니다! 그럼 오늘밤에 나가서 먼저 육지로 오는 수레를 빼앗고, 다음에 배로 오는것들을 빼앗을터이니 태수님께서 재 뒤를잘 보살펴만 주십시오.』

『그렇게합시다.』

이리하여 태수와 장청은 그날 저녁에 일을단행하기로 한후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인다음 하늘이 어둡기를 기다려가지고 장청이 일천명 군사를 거느리고 성밖으로 나갔다. 이날밤 달빛은희미하였으나 별빛은 또렷또렷 하였다.

장청이 서북쪽으로 십리를 채 못가서 한떼의 수레가 이쪽으로 오는것을 보니 맨앞에있는 수레위에 기가 꽂혔는데, 깃발에 쓰인 글자는『수호채 충의량』(水滸寨 忠義糧) 이렇게 똑똑히보인다. 그리고 맨앞에 머리를박박 깎고 검은 옷을 입고 선장(禪杖)을 짚고 걸어오는 사람은 노지심이 분명하다.

東亞案內

尋人
李聖職 五월二일오전七시군대영장 나왔다속히오라 어머니서울에와다 서울의이모
李成贊(35) 신안주에서 자동차운전 하면사탑
卓禮鉉(34) 連絡處 釜山市大廳洞四街三 卓淑鉉·淑子 派出所앞
윤봉오 모든잘못을 용서하고하루속히 돌아오십시요 면회는 납부하였읍니다 五일안으로 돌아오시기를바랍니다 처
변정숙
韓相永 男18 本籍全北任實郡三溪面漁隱里 16歲에나간常年18歲의아들을 어머니가애처로이 찾고있으니 左記住所로속히 오너라 서울特別市元曉路三街三七 金炳奎方 母 鄭仙禮

求人
求中高校敎師 一、數學科 體育科 各高等學校準敎師以上資格所持한男子로서兵役을畢한者 一、勤務處 市內女子中高校 一、于先當分間非常勤 希望者는⑤區任辭職 面談希望

家庭敎師
外 大上級生 初中生성심指導 有經驗 ⑧2650 高
工大 原子力科生 入住希望 ⑥一九六一 서울
女 서울師大 二年 有經驗 誠心指導 ⑧3551 강
서울 師大 京畿女高卒 ⑤5568 金
淑大 英文科生 小學生 ⑤4251 李
醫大 豫科生 中高受驗生 時間制 ③1296 서울

募集
外務 外手 保證金無 日支給 月給 ...
판매원모집 男女自轉車所持者 十萬환 月收 乙支三街 永平도료商
교사모집 一、수학과 체육과 二、만四五세미만자로학교 또는공공기관에현직에 있는자 三、연락처⑤一八九二오후六시이후 ⑤六九九○ 오후六시까지 시내모공립중학교
女社員急募 一、英語會話에能熟한者 二、피아노또는올갠演奏에 多少有경험者若干名 三、募集人員若干名 右今般弊社가美軍PX內에 賣店을設置하게되어 販賣員으로從事할것임 이력서, 사진, 持參要來社 서울忠武路一街四七 三益피아노社 電②五五八八
普及所募集 部落所在地에限함 事業은 市內教育事業이며 日刊新聞教材教育을取扱할 事業을願하는者는小額資金으로設立可能한事業임 現在各處에盛業中이며追加募集임으로先着順으로締切함 外務若干名採用 四月二十五日限電話問議 서울龍山區漢江路一가一二 一 ④一一○三 公社敎材部

賣買
賣藥局 中心地 光化門中心地現盛業中 ②0161
세탁소 盛業中산림방 有價百萬保證金包含 四七七一·四六六一 김병열 ②
피아노急賣 美製88鍵中古 서울市內永登浦區文來洞 정류장앞(세븐미장원內)

貰房
세 놓음 돈암동 一三九번지四 二층에12평반짜리방하나 (연락처) 재동32-7번지 (전화)⑫3616 현씨

營業
TV故障은 韓國TV社 出張責任修理及안테나製作 鍾路二街貫鐵洞 ③六八八 ③七○○七
日賦와月賦 於第一回全國商品展示大會 經濟企劃院長優良賞受賞品 洋服장(카비넷) 서울乙支路四街鍋鑄洞十二 第一企業社 ⑧一二四七

피아노月부 학교용·가정용·연가판매 忠武路入口 ②2618 音樂社
▲淋菌▼ 相談歡迎·實驗檢查治療 白淋泌尿器科·細菌檢查部 明洞市公館앞 南側十M
小兒麻痺痼 三全漢醫院 鐘路區昭格洞五八
國產海狗腎 서울市西大門區忠正路一街四九 東洋劇場앞 直賣品 海狗腎直賣所
세탁 양복上下四○○환 마고리五○○환 다이미까지 양단 社自由드라이商會 區早洞一○六 電②二五四
今春 藥草種苗 각종藥草種苗를 多量確保中오니 目錄을 請求하시면 郵送하겠습니다 大邱市德山洞一五八 大東藥草種苗社 振替口座釜山一九五番

紛失公告
品目 第壹回保險料假領收證一○枚 番號 厚生保險料假領收八五八五八一·八五八三 八五八五八六·八五八四 八七號一、二、三八○號의一、二、三、四、五號 右記第一回保險料假領收證을一九六二年四月一○日釜山西部支社에서紛失하였으므로 無效로함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慶南支社長 金準浩

<官認> 노라노洋裁
라노양재學院
▲職業洋裁師養成
◇사용기구 (자봉틀은 一인당一대제공) 실습자료일체무료제공
○원하시는분은 직접견학하신후 입학바랍니다 (기숙사有)
★특수교육(각양각식의재단(재봉)을 배웠으나 직업재단(재봉)에 자신이없는분 또는一流에미달되신분) 一九六二년最新形各式 별지도함
西大門區忠正路二가(西大門네거리) 우비에식장삼층(다이부五층건물) 代表전화本局②6230

양재 U2式
○개강 四월二○일 (처음보는현대절개분화식) 一人一台자유사용
▲실습재봉기 ▲一次來院見學要望 ▲극빈자·유가족·특진있음
※입학금없음·학비극소
一、개강 4월16일 조·주·야간(女男)
一、본과·연구과·재단과·재봉과
특설과 (재단·재봉兼敎)三개월식 萬能切開裁斷法
▲파리스式 上下종행 (비만·굽진기형기수) 파악법 세위
※가봉은 필요없음 (졸업후시취직결정)
★본원교수진의獨創案 파리스式만능전개재단은 N·R·S·D(海外)전공하신 교수및 국내에서十餘년 직접연구경험(明洞재단)으로 실질적실기실습 교육임
※교수方法은 개별적인개인교수식으로 알리알기쉽게 각과데자인과정을병행하여직업기술인이되기까지책임지도함
용산구 한강로三가六三(육군경리대옆골목) 신용산시장방아간옆二층벽돌집
서울特別市長認可 애덕양재학원

入札公告

左記와如히一般競爭入札에依하여賣却하고저玆以公告함

記

一、品名및數量 左記目錄과如함

不動產의表示

1. 서울特別市中區草洞四一番地의四 垈 五二坪
1. 同 所 四一番地의五 垈 四二坪
1. 同 所 四二番地 垈 二五二坪
1. 右地上 鐵筋콩크리트造陸屋根式附建劇場一棟 建坪 二五二坪 外二階 一八五坪 中二階 一○九坪 塔屋 四坪 地下室 一一坪

一、入札方法 一般競爭入札

一、入札場所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貳街一四一 成業公社

一、入札日時 一九六二年四月二十七日 上午十一時

一、縱覽期日 入札前日까지隨時前記目錄所在地에서縱覽할것

一、應札者登錄 第二業務部에登錄할것

一、開札日時및落札者決定 入札完了와同時開札하되當社內定價格以上의最高入札額으로落札者를決定함

一、入札保證金納付 應札者는入札價格의十分之一以上該當額의現札또는市內所在銀行發行保證手票를入札과同時에納付할것

一、契約金納付 落札人은入札保證金을契約保證金으로함 但, 契約締結時에는契約金額의六割該當額의國債消化狀證提示를要함

一、落札代金納付期限및場所 一九六二年五月二十六日下午四時까지 當社第二業務部에納付할것

一、公賣物件의移轉및明渡 落札金完納과同時에移轉과明渡함 但, 移轉費用은落札人의負擔으로함

其他詳細한것은當社第二業務部에問議하시압

一九六二年四月 日

成業公社

朴東昂大夫人原州元氏以急患四月十五日(陰三月十一日)午前五時半於自宅別世玆以告訃

永訣式 於鍾路區?府洞七二番地 自宅 四月十七日 午前十時

發靷 四月十七日 午前十一時

一九六二年四月十五日

嗣子 東昂 東秀
女 福順 福善
孫 正皓 正大
女婿 金士湜 李一林
親戚代表 朴升潤 元英燮
友人代表 申植秀 黃炳晙 張垌淳 安霖
護喪 韓東湖 韓信

(個別訃告省略) 連絡處 ③三六四二番

本大學副敎授朴東昂氏大夫人原州元氏以急患四月十五日(陰三月十一日)午前五時半於自宅別世玆以告訃
一九六二年四月十五日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同窓 朴東昂大夫人 原州元氏以急患四月十五日(陰三月十一日)午前五時半於自宅別世玆以告訃
一九六二年四月十五日
咸興高普同窓會

議長顧問朴東昂大夫人原州元氏以急患四月十五日(陰三月十一日)午前五時半於自宅別世玆以告訃
一九六二年四月十五日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室

生松脂購買開始

初春之節에 江湖諸賢의 健鬪를 仰祝하나이다 生松脂 多少를 莫論하고 購買코저하오니 앞으로 諸位의 많은 後援과 鞭撻을 바라나이다

一、原則으로 東萊工場現品渡條件으로하되 形便에따라서는 採脂現場까지 出張하여 購入도 하겠읍니다
一、長期的購買契約도 하겠아오며 其他問議事項은 左記連絡處에 直接또는 書信으로 連絡하여주시옵 歡迎하겠읍니다
一、生松脂採取許可申請節次를 弊社에 問議할時는 何時라도 案內하겠읍니다

韓國化成株式會社
釜山中央郵遞局 一二○號 電話②四二一一番
中央洞連絡處 釜山市中央洞貳街一四
工場 釜山市東萊區安樂洞七六九의三 電話東萊一四八番(東萊郵五○米東便)

物品買入公告
一、品名數量 生松脂(송진) 多少量不問
一、買入方法 何時든지買入하되品質의優劣에따라價格을協定함
一、附記 新年度松脂採取許可를받은분에對하여는諸般便宜를보아드릴用意가있아오니直接面談하시압
一九六二年四月 日
大田市郊外柏井里 電話一三四七番
中央樹脂化學工業社
代表 禹泳植

이화정형의원
종로3가 소방서앞

학생 여러분은 수학때문에 입시에 멀어진 학생을 보셨읍니까? 이 책은그러한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험생의 지침서입니다.

客觀式最新数学Ⅰ解析篇

서울工大 敎授 鄭鳳浹 監修
徐鎭根 著

橫造洋裝 總四三三面 特價 1,600圜

全國一齊發賣中
總販 三信書籍
三洋文化社
서울特別市鍾路區觀水洞146의1
電話③0923·振替口座서울1220

4月10日부터 常綠學院에서
著者가 直接 公開講義中
(4月16日 開講)

<이 책의 五大特長>
★금년도 새로운 국가고사 경향에 맞추어 모든 문제를 객관식으로 다루었다.
★2000 여제의【예제】와 【자습문제】를 정선해서 수록했다.
★각【예제】마다【설명】을 붙이고 중요한 것은【참고】와【주의】를 첨가해서 순 강의식으로 풀이했다.
★【자습문제】의 답은 뒤의 해답편에 새넣었고 힘든 문제는【설명】을 첨가했다.
★뒤에 전장에 걸친【종합 총정리 문제】를 실어 실력을 테스트하고 금년도【국가고사문제】와【정해】를 넣어 새로운 입시 경향을 연습하는 발판이 되게 했다.